전남매일

www.jndn.com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제8910호 (음력 6월 9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 경비·청소 용역 | 소방시설관리 | 소독·저수조청소 | 전기안전관리 대행

SWEET 2022 전시회 개막 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SWEET 2022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생훈 기자

광주·전남 '폭염 일주일' 온열질환·축산피해 속출

나주 등 가축 4천여마리 폐사

광주·전남에 일주일째 폭염 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모든 지역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담양·나주·화순에는 폭염 경보가, 나머지 전남 19개 시·군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지역 축산업 분야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나주·영암·무안·해남지역 19개 농가에서 닭·오리·돼지 등 가축 4,05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닷물도 달궈져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해역에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다. 어패류 등 수산업 분야와 작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 기준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광주 4명·전남 42명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주일간 온열질환자 구급 이송 건수는 광주 3건·전남 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남도는 5개 사업에 100억원을 편성, 적기 지원에 나서는 등 축산 분야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방 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60억원, 가축 재해 대응 축사시설현대화 1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4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6억원, 돼지 사료효율개선제 1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 재해 피해 예방 5개 사업에 496억원을 지원해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마릿수가 2018년 97만1,000마리에서 2021년 6만2,000마리로 9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선우 기자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전 불 붙었다

현대백화점그룹 추진 공식화
시, 신세계·롯데와 물밑 접촉
공장 이전 금호 움직임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광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업계의 경쟁에 불이 붙었고, 중소상인들의 반발, 시민 이익 극대화 방안 등 복합쇼핑몰을 둔 논란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20면

현대백화점그룹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대규모 미래형 문화 복합몰인 더현대 광주(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부동산 개발 기업인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와 광주 북구 일대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 약 31만㎡(약 9만평) 내에 미래지향적 도심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 출점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는 국내 대표 디벨로퍼 신영을 비롯해 종합 부동산 회사인 우미건설과 휴먼스홀딩스 등이 주주사로 참여한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

휴먼홀딩스 제1차 PFV는 전남·일신방직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엠비엔프라퍼티 등이 참여해 광주시와 토지 이용계획을 협의 중이다.

광주 북구 일대 개발을 맡은 휴먼홀딩스 제1차 PFV는 미래형 문화 복합몰인 '더현대 광주' 외에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 국제 규모의 특급호텔, 프리미엄 영화관 등을 추가 유치하고, 인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와 연계한 '야구인의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방직 산업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공원'을 바탕으로 이 일대를 쇼핑, 문화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한 테마파크형 복합쇼핑몰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미래형 문화 복합몰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소매점을 중심으로 결합된 지금의 복합쇼핑몰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쇼핑과 더불어 여가·휴식·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접목되는 새로운 업태다"며 "더현대 광주의 현지 법인화를 통한 독립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 협력업체 육성 및 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생산 유발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전남·일신방직 부지를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자 측으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대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공장 건축물 보존과 함께 도시경쟁력 제고, 국제적 수준의 호텔 건립,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설치 등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공식 선언으로 대형 유통업계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경쟁에도 불이 붙게 됐다.

광주에 백화점을 둔 신세계, 롯데 측에서도 그동안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직공장터를 사업 부지로 점찍은 현대백화점그룹과 달리 신세계, 롯데는 지역 주요 거점별로 다수 후보지를 설정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금호타이어 공장의 함평 이전과 맞물려 금호 측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협상·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 말께 사업안이 최종 확정될 수도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장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서동욱

서동욱

김태균

전경선

부의장에 김태균·전경선 선출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4선의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선출됐다.

전남도의회는 6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서 의원과 재선인 진보당 오미화 의원(영광2)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58표를 얻은 서 의원이 당선됐다.

신임 서 의장은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해 도민 권익 신장·복리 증진·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으로 민주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2부의장은 역시 민주당 소속 3선 김태균 의원(광양3)과 재선 전경선 의원(목포5)이 각각 단독 출마해 확정됐다.

운영위원장 차영수 의원(강진), 기획행정위원장 신민호 의원(순천6),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 의원(목포1),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이철 의원(완도1),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동현 의원(보성2), 농수산위원장 신의준 의원(완도2), 교육위원장 조옥현 의원(목포2)이 맡았다.

도의회는 7일 6개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마무리한다. /오선우 기자